

勞 動 經 濟 論 集  
 第 44 卷 第 1 號, 2021.3. pp.135~16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이 영 욱\*\*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주제어: 긴급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 코로나, 현금지원, 소비

### I. 서 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및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부터 전체 가구에 지급되었다. 본래 정부안에서는 소득하위 70%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문 접수일: 2021년 1월 8일, 논문 수정일: 2021년 3월 3일, 논문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0일

\* 본 논문은 용역보고서(2020)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중 제4장 「경제효과 분석 III: 현금수급가구 분석」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ywlee@kdi.re.kr)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때 현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가구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현금수급가구는 총 287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2.9%에 해당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0.9.23.).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과 함께 소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급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구의 지출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반응하여 가구들의 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평소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미래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제 가구의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 분석 시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수급가구의 12.9%를 차지하는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현금 지급은 카드, 상품권 등의 다른 지급수단과는 차별점을 가진다. 카드, 상품권을 통한 지원금은 소비지출에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지만, 현금 지원금은 소비지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다.<sup>1)</sup> 당장의 소비보다 빚 상환이나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이 더 필요한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어진 금액만큼 전부 소비하는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빚 상환이나 저축 증가에 사용함으로써 가구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급수단과는 구별하여 현금수급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금지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1) 물론 카드,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금 전체가 기존 소비 대체에 사용된다면 지원금 액수만큼 지원금을 소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소비액수가 지원금 액수보다 적거나 여러 제한으로 인해 지원금으로 기존 소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면, 지원금만큼 소비를 해야 하는 카드,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며 소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액수는 적어진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필수소비재 구매가 가능하여 기존 소비 대체 경향이 클 것으로 추측되나, 카드, 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에는 지역, 온라인 이용,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이용, 업종, 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있기에 기존 소비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현금 지급의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과 같이 취약계층이기에 이들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용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에게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파악하고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현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과 함께 빚 상환, 저축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소비지출이 본래 계획된 지출인지 확인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금수급가구의 주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용도로는 소비지출이 93.7%, 저축이 3.8%, 빚 상환이 1.8%로 응답되어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된 것으로 관찰된다. 소비지출 사용액 중 품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7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소비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의 21.7%가 본래 계획되지 않은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현금수급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제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II.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020년 4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5월부터 8월까지 총 2,216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본래 정부안에서는 소득하위 70%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

로 설정하였으나,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현금 지원금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기존 복지전달체계 내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확인하여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었다. 5월 1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였고, 5월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졌는데,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0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등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지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간 내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종,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은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기에 사용 용도 및 사용기간이 자유로우며 소비지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의 장점으로는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던 계좌를 활용하여 현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다른 지급수단과 비교하여 시행 준비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현금은 소비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기 어렵기에 당장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저소득층인 취약계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현금 지원금이 소비지출로 사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Ⅲ. 분석 개요

#### 1. 자료 수집 방법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카드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현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가구에 대해 대표성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비교적 일반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또는 횡단면 자료들의 경우 가구 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가구의 비중이 작아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자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현금수급가구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의 서베이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월 단위 소비현황을 조사하나, 전체 사회수혜금 정보만 알 수 있어서 현금수급가구를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기존 자료들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특별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자료가 발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현재 시점에서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금수급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소비지출 특성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효과 분석 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저소득층,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설문조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설계 시 세세한 사용 내역 및 세부적인 지출 품목보다는 비교적 큰 단위의 내역 및 품목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5월 초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5월부터 8월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소비를 사용 직후에 조사함으로써 설문조사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주요국의 소비지원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또한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2001년과 2008년 미국에서 실시된 세금환급(tax rebate)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기존 설문조사에 세금환급 관련 문항들을 추가하여 지원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hapiro and Slemrod(2003a,b)는 매달 조사되는 Survey of Consumers에 2001년 세금환급 사용 용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Shapiro and Slemrod(2009)와 Sahm et al.(2010)도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2008년 세금환급에 대한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Johnson et al.(2006)과 Parker et al.(2013)은 3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에 각각 2001년과 2008년 세금환급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Kan et al.(2017)은 2009년 대만의 소비바우처프로그램(Shopping Voucher Program)에 대한 소비효과 분석을 위해 소비바우처 지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바 있다. Coibion et al.(2020)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시행된 현금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하여 현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직접 조사하였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0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었다.<sup>2)</sup> 현금수급가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표본추출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목표표본 수를 1,500가구로 삼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할 시·군·구와 각 시·군·구별 표본가구는 집락추출법으로 추출되었다. 우선 시·도 단위의 현금수급가구 분포를 이용하여 각 시·도의 표본가구수를 확정하였다. 이에 맞춰 각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할 표본가구수와 이를 위해 필요한 시·군·구 수를 정하였다. 이후 정해진 시·군·구 숫자에 맞게 설문조사를 수행할 시·군·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된 시·군·구에 표본추출지침을 전달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지침

2) 시군구에 따라 이후에 설문조사가 실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4일 이전에 완료되었으며, 24일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수는 총 57가구이다.

에 따라 할당된 표본 수에 맞게 표본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가구에 대해 전화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응답이 작성된 설문지를 취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설문조사 내용<sup>3)</sup>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3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을 조사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금지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지출 이외에 빚 상환과 저축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지출, 빚 상환, 저축 중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용도에 얼마씩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저축의 경우 근접한 미래에 소비지출로 다시 사용된다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가까울 수 있기에 향후 1년 동안 저축을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1년 내 지출할 계획인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품목별 지출현황을 조사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설문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큰 단위로 묶어 지출품목 문항을 구성하였다. ① 식료품, 주류, 담배, 가정생활용품 구매, ② 외식, ③ 가전제품, 컴퓨터, 가구 등 구매 ④ 의류, 서적, 문방구류 등 구매, ⑤ 보건의료비, ⑥ 서비스 이용(이발소·미용실 이용, 여행, 학원, 보육·교육 등)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때 단순한 가구의 소비지출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소비지출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지출품목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사용하였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액수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지출했을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지출이 평소의 지출을 단순히 대체한 것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비를 늘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본래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한 것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 추정 시 가구의 본래 계획된 소비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

3)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체효과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해당 가구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직, 휴직, 구직의 어려움, 소득 감소를 경험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내년 해당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경제적 기대에 따라 소비행태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구원 수, 취업 중인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인 가구원 수, 만 18세 미만인 가구원 수, 주거 점유 형태, 가구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급에 대한 수급 여부와 수급 형태를 조사하였다.

### 3. 현금수급 대상가구 특성

가구원 모두가 복지수급자인 현금수급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와는 다른 소득구성 및 소비패턴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고자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원 모두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급을 수급하는 현금수급 대상가구를 식별하고 이들의 소득구성과 평소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금수급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소비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과대표집(over-sampling)을 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생계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응답한 가구,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며, 가구원 모두가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가구, 기초연금을 수급하며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해 실제 현금수급가구에 비해 과다하게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금수급 대상가구로 총 2,251가구가 선택되었고, 이 중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2,058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과다선택 영향을 배제하고자 생계급여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로 한정된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가구는 총 493가구이다.

<표 1>은 전체 가구와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우선

〈표 1〉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가구특성 및 소득

	(1) 전체 가구	(2) 현금수급 대상가구	(3) 기초연금 수급가구 제외 현금수급 대상가구
가구주 연령 (평균)	56.38	72.88	65.35
가구주 연령 구성			
50세 미만	34.00	3.22	10.37
50~64	35.21	11.73	37.76
65~74	16.13	35.23	22.85
75세 이상	13.16	49.82	29.01
가구원 수	2.43	1.39	1.45
18세 미만 가구원 있는지 여부	0.227	0.023	0.075
가처분소득 (만원)	4,818	1,541	1,406
근로·사업소득 (만원)	4,115	317	209
근로·사업소득 있는지 여부	0.786	0.349	0.248
관측치 수	6,331	2,251	493

주: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가구원 전원이 수급한 가구, 전체 가구원이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을 수급한 가구, 전체 가구원이 3등급 이상 장애를 가지며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가구를 포함하며, 모든 분석에서는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 2019.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 비해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연령이 높게 관찰된다.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포함한 경우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72.88세이며,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도 65.35세로 전체 가구 평균인 56.3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 구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0~64세 미만과 50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65세 이상인 가구가 8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는 50~64세 미만 가구주 비중이 가장 높으나, 여전히 65세 이상 비중이 52%로 절반 이상이다.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는 2.43명인 반면,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1.39명으로 더 적은 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구 내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는

22.7%,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2.3%,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한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7.5%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구 특성들은 현금수급 대상가구가 주로 고령 단독가구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연평균 317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115만 원에 비해 크게 낮다.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근로·사업소득은 209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는 연평균 4,818만 원으로 근로·사업소득과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541만 원,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한 경우 1,406만 원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는 78.6%가 근로·사업소득을 가지는 반면,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34.9%에 불과하여 현저하게 낮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24.8%만 근로·사업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2>는 전체 가구와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품목별 평소 소비지출현황을 보여준다. 지출 품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품목들과 유사하게 맞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지패널조사의 경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구매가 함께 묶여 있어서 가구를 별도의 지출 품목으로 구성하고 가사용품을 식료품 등과 함께 하나의 지출 품목으로 구성한 설문조사 문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서적, 음반 등이 설문조사에서는 의류, 잡화 구매와 묶여 있으나, 복지패널조사에서는 교양오락비로 묶여 있어 서비스 이용에 포함되었다. 복지패널조사에서는 소비지출에 대해 2018년 1년 동안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묻고 있다. 이에 따라 지출 품목별 지출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지난 1년간 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되고 있다. 하지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외식과 피복신발 구매를 위해 소비지출을 한 적이 있는 비중이 각각 0.877, 0.896으로 전체 가구와 비교해 낮게 관찰된다.

품목별 지출 비중에서는 전체 가구와 현금수급 대상가구 간의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류, 담배 구매를 위한 지출 비중이 소비지출액 대비 0.550으로 전체 가구의 0.389에 비해 높다. 또한, 보건의료비에 대한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지출 비중이 0.210으로 전체 가구의 0.12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외식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0.181인 반면,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0.091로 절반 정도로 낮게 관찰된다. 또한, 보육, 교육, 교양오락비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전체 가구에서는 0.176이나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0.048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같이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패턴에 있어서는 식료품 구매 및 보건의료비 등 필수지출품목에 대한 비중이 높게 관찰되는 반면, 외식, 보육·교육, 교양오락비 등 비교적 부차적인 지출에 대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비중이 높으며 저소득층인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품목별 평소 소비지출현황

	전체 가구		현금수급 대상가구	
	(1) 지출 여부	(2)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1) 지출 여부	(2)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식료품, 주류, 담배 구매	1	0.389	1	0.550
외식	0.969	0.181	0.877	0.091
가구집기, 가사용품 구매	0.993	0.060	0.983	0.062
피복신발 구매	0.971	0.070	0.896	0.040
보건의료비	0.974	0.124	0.953	0.210
보육·교육, 교양오락비	0.997	0.176	0.993	0.048

주: 현금수급 대상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가구원 전원이 수급한 가구, 전체 가구원이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을 수급한 가구, 전체 가구원이 3등급 이상 장애를 가지며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가구를 포함하며, 모든 분석에서는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 2019.

## IV. 분석 결과

### 1. 기초통계

목표 표본가구 수는 1,500가구이나, 실제 설문조사가 착수되어 집계된 표본 수는 1,495가구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지원금 액수 및 사용 용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경우, 18세 이하 설문 응답자인 경우, 응답자가 현금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386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품목별 소비지출의 특성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총 913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래 모든 분석에서는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3>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재난지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61.7%가 1인 가구 지원액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받았고, 2인 가구 지원액인 60만 원을 받은 가구가 23.4%, 3인 가구 지원액인 80만 원을 수급한 가구가 4.2%, 4인 가구 이상 지원액인 100만 원을 받은 가구가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금 지급액 분포는 현금수급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임을 보여주며, 실제 가구원 수 평균은 1.44명으로 조사되었다. 사용 시점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응답이 47.1%, 6월은 33.7%, 7월은 12.0%, 8월은 4.2%로 5월 초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금의 경우 카드와 달리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현금수급가구의 경우에도 3%만이 8월 이후에도 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대다수가 8월 말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복지혜택 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설문조사 내에서 현금수급가구의 48.5%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이며,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8.1%,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8.7%이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가구는 71.2%인 반면, 50세 미만 비중은 11.8%에 불과하여 고령가구가 현금수급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금지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및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75세 이상 응답자의 비중은 35.4%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정도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2%는 여성이며, 18세 미만의 가구원이 없는 가구가 9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응답가구의 특성을 앞서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본 <표 1>의 현금수급 대상가구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복지패널조사의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과다하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가구 비중이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포함하는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는 85%이며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52%로 관찰되는데, 설문조사에서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71.2%로 복지패널조사의 두 수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복지패널조사에서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은 1.4명 내외로 관찰되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1.44명으로 유사하다.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7.7%로 관찰되어 복지패널조사의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제외한 현금수급 대상가구에서의 비중인 7.5%와 유사하다.

설문조사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및 가구 특성에 대한 문항과 함께 현재의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움 여부, 미래에 대한 기대 등 가구의 의견을 묻는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45.6%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는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급가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28.4%,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14%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직과 휴직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중은 각각 3.1%, 3.3%로 나타났다. 내년의 가구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14.2%에 그쳤으며, 절반 이상인 52.3%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33.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하여 부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50.4%, 38.0%가 각각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서 대부분의 현금수급가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초통계

변수		비중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40만원	0.617
	60만원	0.234
	80만원	0.042
	100만원	0.029
	기타	0.079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간	5월	0.471
	6월	0.337
	7월	0.120
	8월	0.042
	8월 이후에도 대부분 사용 못 함.	0.030
수급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	0.485
	생계급여	0.399
	기초연금	0.581
	장애인연금	0.087
응답자 연령	50세 미만	0.118
	50-64	0.170
	65-74	0.358
	75세 이상	0.354
응답자 성별	여성	0.522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없음	0.923
	있음	0.077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중복응답 가능)	실직	0.031
	휴직	0.033
	구직의 어려움	0.140
	소득 감소	0.284
	없음	0.456
기타	0.110	
내년(2021년)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좋아질 것	0.142
	변화가 없을 것	0.523
	나빠질 것	0.334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매우 도움	0.504
	다소 도움	0.380
	보통	0.099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0.016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	0.002

〈표 4〉는 현금수급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지출, 빚 갚음, 저축 중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여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다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소비지출 이외의 빚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할

<표 4> 긴급재난지원금 주된 사용 용도 (%)

주요 소비지출	주요 빚 상환	주요 저축	기타
93.7	1.8	3.8	0.7

수 있다. 분석 결과 현금수급가구의 93.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로 소비지출에 사용하였고, 저축은 3.8%, 빚 상환은 1.8%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2008년, 2020년 미국에서 실시한 현금지원의 주된 사용 용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실시된 세금환급지원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최근의 지원에 대한 분석에서 지원금을 주로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는 비중은 2001년, 2008년, 2020년 각각 21.8%, 19.9%, 15%인 반면, 주로 빚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46.2%, 48.2%,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로 저축에 사용하였다는 비중도 각각 32.0%, 31.8%, 32.8%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Shapiro and Slemrod, 2003a; Shapiro and Slemrod, 2009; Coibion et al., 2020). 미국의 분석 결과들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의 설문조사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금수급가구의 경우 주로 빚 상환에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비중이 1.8%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였다는 점은 미국 분석 결과와의 큰 차이점이다.

## 2. 현금수급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표 5>는 소비지출, 빚 상환, 저축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을 보여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축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5.7%로 앞서 주된 사용 용도에 관한 분석 결과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양(+)의 값의 저축액을 응답한 가구에 한정하여 저축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29.5만 원으로 가구당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대비 6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축의 경우 근접한 미래에 소비지출로 다시 사용된다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가까울 수 있기에 향후 1년 동안 저축을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1년 내 지출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1년 내 지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6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시적으로 소비지출을 이연하였을 뿐 근접한 미래에 소비지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제 소비지출로 사용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표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사용 용도	평균
저축	0.057
저축액이 (+)인 가구 한정: 저축액	294,821원 (15,196)
지원금 대비 저축액 비율	0.649 (0.036)
저축액을 1년 내 지출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0.658
빛 상황	0.040
빛 상황액이 (+)인 가구 한정: 상황액	290,258원 (28,566)
지원금 대비 상황액 비율	0.529 (0.041)
소비지출	0.959
소비지출액이 (+)인 가구 한정: 소비지출액	454,360원 (4,314)
지원금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	0.944 (0.005)

주: 괄호 안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시.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빛을 갚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4%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양(+)의 값의 빛 상황액을 보고한 가구에 한정하여 빛 상황액 평균을 계산해보면 29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대비 52.9%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지출에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5.9%로 대다수 가구에서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비지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45.4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대비 94.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현금수급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6>은 소비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①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구매, ② 외식, ③ 가전제품, 컴퓨터, 가구 등 구매 ④ 의류, 서적, 문방구류 등 구매, ⑤ 보건의료비, ⑥ 서비스 이용(이발소·미용실 이용, 여행, 학원, 보육·교육 등) 각 지출품목별 긴급재난지원금 지출현황을 보여준다. 첫 번째 열의 각 지출품목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지출품목에 지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90.3%에 이른다. 그다음으로는 병원비,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에 40.5%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외식에 25.8%, 의류, 서적 등

구매에 16.5%, 서비스 이용에 8.9%,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 구매에 4.4%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열에서 각 품목에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평균액은 식료품, 가정생활용품이 30.1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비가 6.6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외식에 평균 3.1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의류, 서적 등에 평균 1.8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출되었다.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와 서비스 이용에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평균액은 각각 0.7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 번째 열에서는 해당 지출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양(+)인 가구에 한정하여 각 품목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평균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여전히 식료품, 가정생활용품에 대해 평균 33.6만 원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병원비,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에 평균 17.1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 구매를 위한 사용액이 평균 17.1만 원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전체 사용액 기준으로는 내구재 구매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내구재에 대해 지출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 사용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구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비중 자체는 낮으나, 사용한 경우에는 내구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외식과 보건의료비에 대한 사용액이 각각 12.9만 원, 11.6만 원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8.3만 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비중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사용을 한 경우에도 그 사용액이 가장 낮았다.

네 번째 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총소비지출액 대비 품목별 사용액 비중을 살펴보았다. 식료품 및 가정생활용품 구매가 총소비지출액의 70.3%로 가장 많은 비중의 소비지출이 필수재 소비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에 총소비지출액 대비 15.7%가 사용되었고, 외식에 6.9%가 사용되었다. 의류, 서적 등에는 4%,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에는 1.7%, 서비스 이용에는 1.5%가 각각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 내역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출 내역과 비교해보면, 카드로 사용한 경우 마트·식료품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의 26.3%, 대중음식점에 24.3%, 병원·약국에 10.6%가 지출되었다(행정안전부, 2020.9.23.). 현금지원금과 카드지원금 간의 품목별 사용 비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필수재, 보건의료비, 외식에 가장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것은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다만 현금수급가구의 경우 필수재에 사용된 비중이 훨씬 높으며, 외식에 사용된 비중은 카드로 지급된 가구와 비교하여

〈표 6〉 품목별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지출현황

	(1) 지출여부	지출액(원)		(4) 총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5) 구매계획이 없던 품목에 대한 지출여부
		(2) 전체	(3) 해당 품목 지출액>0		
식료품, 주류, 담배, 가정생활용품 구매	0.903 (0.008)	301,173 (4,770)	335,844 (4,290)	0.703 (0.009)	0.179 (0.013)
외식	0.258 (0.012)	31,373 (1,965)	128,884 (5,187)	0.069 (0.004)	0.668 (0.031)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가구 구매	0.044 (0.006)	7,184 (1,244)	171,241 (20,410)	0.017 (0.003)	0.766 (0.076)
의류, 잡화, 장신구, 서적, 음반, 문방구류 구매	0.165 (0.010)	18,264 (1,459)	115,713 (5,831)	0.040 (0.003)	0.631 (0.040)
병원비,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	0.405 (0.013)	65,846 (3,228)	171,341 (5,964)	0.157 (0.007)	0.083 (0.015)
이발소·미용실 이용, 여행, 스포츠 레저, 학원, 교육 등 서비스 이용	0.089 (0.008)	6,930 (919)	82,628 (8,243)	0.015 (0.002)	0.310 (0.054)

주: 괄호 안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표시함. (2)열의 전체 지출액 평균 계산 시 해당 품목을 구매하였다  
고 응답하고 지출액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3)열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양(+)  
인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함. (4)열은 총소비지출액이 양(+)인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였고, (5)열의 구매계  
획이 없던 품목에 대한 지출 여부는 해당 품목을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함.

낮게 관찰되었다. 앞서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본 <표 2>의 평소 소비패턴에서도  
현금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식료품 및 보건의료비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음으로 높게 나  
타나 전체 가구와 비교 시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6>의 마지막 열에서는 품목별로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지출했을 것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지출이 본래 계획된 지출을 단순히 대체한  
것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총 소비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하여 긴  
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이다.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등의 필  
수재에 대한 소비지출의 경우 구매계획이 없던 지출은 17.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앞  
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90.3%로 대부분의 가구가  
지원금으로 필수재를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지출의 대부분이 본래의 구매계획을 바꾸어

가구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본래의 소비지출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비 등의 보건의료비의 경우 구매계획이 없던 지출 비중은 8.3%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였다는 비중은 40.5%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지출하기보다는 대부분 본래의 계획된 지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에 대해 구매계획이 없던 지출 비중은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구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비중은 4.4%로 가장 낮았으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계획이 없던 소비를 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외식과 의류, 서적 등의 품목 구매의 경우에도 구매계획이 없던 지출 비중이 각각 66.8%, 63.1%로 높게 나타났다.

### 3.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한계소비성향

<표 7>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대체효과를 고려하여 실제 소비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을 분석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지출이 본래 계획한 지출을 단순히 대체한 것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비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 없기에 이러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의 대만의 소비바우처 소비효과를 분석한 Kan et al.(2017)의 방법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하였다.

$$\text{한계소비성향}(MPC) = \sum_{i=1}^6 s_i \frac{c_i}{C}$$

위의 식에서  $i$ 는 ①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구매, ② 외식, ③ 가전제품, 컴퓨터, 가구 등 구매 ④ 의류, 서적, 문방구류 등 구매, ⑤ 보건의료비, ⑥ 서비스 이용으로 구성된 각 지출품목을 의미한다.  $s_i$ 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였는지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어도 지출하였을 것인지 묻는 문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어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0의 값을, 그 외에는 1의 값을 가지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c_i$ 는 해당 지출 품목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소비지출액을 의미하며,  $C$ 는 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지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본래 계획한 소비지출을 단순 대체한다고 볼 수 없기에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은 제외하고 소비지

출로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비중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해당 소비지출의 특성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지출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전체 소비로 오인되는 경우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 감소로 인해 평소 지출하던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어려워졌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지출을 하였다면 응답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한 한계소비성향 연구의 한계는 기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근사치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각각의 추정 편의가 어느 가구에서 발생할지 고려해보면, 부분 소비를 전체 소비로 오인하는 첫 번째 경우에는 소비지출 단위가 큰 품목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받은 가구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높게 추정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에 변동이 생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낮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나타났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중 21.7%가 본래의 가구 소비지출을 대체하지 않은 소비지출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5세 미만인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0.251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0.204보다 높게 나타난다. 두 수치 간의 차이는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복지제도 수급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표본 전체와 비교적 유사한 한계소비성향을 가지는 반면, 고령가구인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0.19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한계소비성향이 0.294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192로 낮게 나타난 반면, 실직, 휴직, 구직의 어려움, 소득 감소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가구는 한계소비성향이 0.2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두 수치 간의 차이는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소득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한계

<표 7> 한계소비성향

변수		한계소비성향
전체		0.217 (0.011)
연령	65세 미만	0.251 (0.022)
	65세 이상	0.204 (0.013)
		p-value=0.067*
수급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	0.211 (0.016)
	기초연금	0.190 (0.014)
	장애인연금	0.294 (0.041)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부	없었음	0.192 (0.015)
	실직, 휴직, 구직의 어려움, 소득감소 등 경험	0.232 (0.018)
		p-value=0.095*
가구소득	1분위(저)	0.228 (0.022)
	2분위	0.221 (0.028)
	3분위	0.206 (0.019)
	4분위(고)	0.214 (0.024)
		p-value=0.882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없음	0.218 (0.012)
	있음	0.247 (0.039)
		p-value=0.518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매우 도움	0.218 (0.016)
	다소 도움	0.228 (0.019)
	보통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음	0.175 (0.034)
		p-value=0.409
내년(2021년)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좋아질 것	0.202 (0.030)
	변화가 없을 것	0.221 (0.016)
	나빠질 것	0.218 (0.021)
		p-value=0.817

주: 괄호 안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표시함. p-value는 기준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나타내며, \*는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수급 여부 기준의 경우 수급여부별 집단 간에 서로 중복되는 가구가 있어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못함.

소비성향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적 변동을 겪은 가구에서 낮게 추정되고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는 높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는 본 논문의 추정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표본 내에서 4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낮은 분위의 저소득가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228, 0.221로 높은 분위의 고소득가구에 대한 0.206, 0.21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8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18세 미만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0.218인 반면,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0.247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의 0.175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내년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제일 높게 나왔으나,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결과는 유사한 방법으로 대만 소비바우처의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Kan et al.(2017)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대만 소비바우처의 한계소비성향은 전체에 대해 0.243으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보다 높으나, 소비바우처 사용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대대적인 할인행사의 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는 0.164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보다 다소 낮아진다. 또한, 현금수급 대상자가 대부분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대만의 60세 이상 연령층에 한정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전체에서는 0.203, 할인행사의 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는 0.168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관찰되었다. 한편, 소비지출데이터를 활용하여 2001년, 2008년 미국의 세금환급의 소비효과를 분석한 Johnson et al.(2006)과 Parker et al.(2013)에서는 비내구재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각각 0.2~0.4, 0.12~0.3으로 관찰되었다. 일본의 1999년 소비쿠폰에 대한 Hsieh et al.(2010)에서는 준내구재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0.1~0.2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국민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존 문헌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는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및 소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금지원금은 5월 초 지급된 이후 대부분 8월 말 이전에 사용되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 소비지출 이외에 저축, 빚 상환 등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하나, 93.7%가 주로 소비지출로 사용되었다. 품목별 소비지출을 나누어 보면,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총 소비지출액의 7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외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관찰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금수급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면, 현금수급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중 21.7%를 본래의 가구 소비지출을 대체하지 않은 소비지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관찰된다. 수급 중인 복지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계소비성향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 낮으며,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다른 복지수급가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 용도 및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한인 8월까지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되어 현금지급이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다른 지급수단과 비교하여 대상 가구의 사용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금수급가구의 경우 복지급여를 수급하며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소비지출 현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필수재 및 보건의료비에 대한 현금수급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카드로 지급받은 가구와 비교하여 높게 관찰되며, 외식 등은 낮게 관찰되고 있다. 필수재 및 보건의료비에 대한 소비지출의 경우 구매 계획이 없던 지출이기보다 본래의 소비지출을 대체하였다는 응답이 높았음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품목별 소비지출 현황은 현금수급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관찰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전체

가구에 관한 결과와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금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취약계층이기에 전체 가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65세 이상 응답자 비중이 71.2%로 고령가구가 다수라는 점 또한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체 가구에 관한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한편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실제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카드 매출 또는 가구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는 분석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한 액수뿐 아니라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함께 포함하여 결과를 추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지출을 늘리게 되면 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 카드 매출 및 가구 소비 자료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한 액수와 함께 파급된 소비지출 액수까지도 포함된다. 반면, 본 논문에서 활용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묻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한 효과만을 포함한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지원금을 통한 소비지출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였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비지출 자료 분석 결과에 비해 한계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 이영욱. 「경제효과 분석 III: 현금수급가구 분석」. 이태석 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I』. pp.89-105.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2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20.
-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보도자료, (2020. 9. 23)
- Coibion, Olivier, Gorodnichenko, Yuriy, and Weber, Michael. “How Did US Consumers Use Their Stimulus Payments?” NBER Working Paper No. 27693, (August

- 2020).
- Hsieh, Chang-Tai, Shimizutani, Satoshi, and Hori, Masahiro. "Did Japan's Shopping Coupon Program Increase Spend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7-8) (August 2010): 523-529.
- Johnson, David S., Parker, Jonathan A., and Souleles, Nicholas 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 (5) (December 2006): 1589-1610.
- Kan, Kamhon, Peng, Shin-Kun, and Wang, Ping. "Understanding Consumption Behavior: Evidence from Consumers' Reaction to Shopping Voucher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 (1) (February 2017): 137-153.
- Parker, Jonathan A., Souleles, Nicholas S., Johnson, David S., and McClelland, Robert. "Consumer Spending and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6) (October 2013): 2530-2553.
- Sahm, Claudia R., Shapiro, Matthew D., and Slemrod, Joel. "Household Response to the 2008 Tax Rebate: Survey Evidence and Aggregate Implications." *Tax Policy and the Economy* 24 (1) (2010): 69-110.
- Shapiro, Matthew D., and Slemrod, Joel. "Consumer Response to Tax Reb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1) (March 2003a): 381-396.
- Shapiro, Matthew D., and Slemrod, Joel. "Did the 2001 Tax Rebate Stimulate Spending? Evidence from Taxpayer Surveys." *Tax Policy and the Economy* 17 (2003b): 83-109.
- Shapiro, Matthew D., and Slemrod, Joel. "Did the 2008 Tax Rebate Stimulate Spend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9 (2) (May 2009): 374-379.

## Cash-Receiving Households' Responses to Covid-19 Transfers

YoungWook Lee\*

This paper studies how households who received Covid-19 transfers in cash used their one-time transfers. The transfers were paid in cash for welfare recipient households, which accounted for 12.9% of all households. Using a survey data, it is found that the cash transfers are mostly used fo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21.7 percent of the cash transfer used are spent on additional consumption not originally planne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cash transfers is greater in households that experienced job or income loss because of Covid-19.

Keywords: stimulus payments, Covid-19,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cash transfer, consumption

---

\*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ywlee@kdi.re.kr)

## 〈부 록〉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조사자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통계처리 등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조사자 유의사항※

- 응답자에게 모든 응답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응답자의 이름이 응답내용과 연결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내용, 설문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시 표현된 문구대로 질문과 선택지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 천천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모름, 무응답 등의 응답이 모든 질문에 대해 허용되지만,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미리 피면점자에게 읽어 주지는 마십시오.
-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한국개발연구원
- 아래 응답자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역	시도		시군구
면접일	9월	일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세	

#### A.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지급되었고,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1. 귀하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문 2 로**  
 ② 아니오           ☞ **설문종료**(※대상자 아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원으로 재조사)

2.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 ① 40만원  
 ② 60만원  
 ③ 80만원  
 ④ 100만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3. 귀하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주로 소비지출  
 ② 주로 빚 갚음  
 ③ 주로 저축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4. 귀하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 ① 5월에 대부분 사용  
 ② 6월에 대부분 사용  
 ③ 7월에 대부분 사용  
 ④ 8월에 대부분 사용  
 ⑤ 8월 이후에도 대부분 사용 못 함

5. 긴급재난지원금을 저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 5-1 로**
- ② 아니오 ☞ **문 6 으**로

5-1. 긴급재난지원금 중 얼마를 저축하셨습니까?

(            원)

5-2.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축하신 것을 적어도 1년 동안은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1년 내 지출에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 ① 적어도 1년 동안은 저축 유지
- ② 이후 지출에 사용

6. 긴급재난지원금을 빛 갚는 데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 6-1 로**
- ② 아니오 ☞ **문 7 로**

6-1. 긴급재난지원금 중 얼마를 빛 갚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            원)

※ 7-12번 각각의 문항에는 (1), (2), (3)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해당 품목)이라 표시된 부분에는 7-12번 각각의 문항에 해당하는 지출품목을 넣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1)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당 품목에 지출했는지 질문합니다.  
 지출하였다고 응답한다면(① 예), 오른쪽의 (2)와 (3)을 차례로 질문해주시고 (3)의 질문에서는 선택지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다면(② 아니오), 다음 지출품목에 대한 질문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5-1, 6-1, 7-(2), 8-(2), 9-(2), 10-(2), 11-(2), 12-(2)번에서 응답한 금액의 총합이 해당 기구가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초과한다면 응답자에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7-12. 귀하 기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품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출품목	(1) "귀하 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해당 품목)에 지출하셨습니까?"	(2) "긴급재난지원금 중 얼마를 (해당 품목)에 지출하였습니까?"	(3)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7. 식료품, 주류, 담배, 가정생활용품 구매 (가정용 소모품, 집기, 화장품 등)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8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8. 외식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9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9.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가구 구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휴대폰, 컴퓨터, 프린터, 가구 등)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10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10. 의류, 잡화, 장신구, 서적, 음반, 문방구류 구매 (의류, 신발, 넥타이, 지갑, 벨트, 반지, 시계, 책, CD, 장난감 등)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11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11. 병원비, 약제비 등 보건 의료비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12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12. 이발소·미용실 이용, 여행, 스포츠 레저, 학원, 보육·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문13로</b>	( 원)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했을 것 ②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

**B. 전체 의견**

13.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귀하 가구는 실직, 휴직, 구직의 어려움,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음.
- ② 실직 경험
- ③ 휴직 경험
- ④ 구직의 어려움 경험
- ⑤ 소득 감소 경험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4. 긴급재난지원금이 귀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됨
- ② 다소 도움됨
- ③ 보통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⑤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

15. 귀하 가구의 경제상황은 내년(2021년)에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좋아질 것
- ② 변화가 없을 것
- ③ 나빠질 것

## C. 가구 및 가구원 사항

※ 아래 문항들 중 행정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행정자료로 확인하여 채우셔도 됩니다.

16. 귀하는 귀하 가구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가구주
- ② 가구주의 배우자
- ③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7. 귀하 가구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18. 귀하 가구에서 취업 중인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_\_\_\_\_명

19. 귀하 가구에 만65세 이상인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20. 귀하 가구에 만18세 미만인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21. 귀하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
- ④ 월세 (사글세)
- ⑤ 기타 (무상 포함)

22. 귀하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에 대한 수급여부와 수급형태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급여종류	수급여부 ① 예 ② 아니요	수급형태 ① 해당 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3.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정부보조금 등 포함)

- ① 0원      ② 1-49만원    ③ 50-99만원    ④ 100-149만원    ⑤ 150-199만원
- ⑥ 200-249만원    ⑦ 250-299만원    ⑧ 300-349만원    ⑨ 350-399만원    ⑩ 400-449만원
- ⑪ 450-499만원    ⑫ 500만원 이상    ⑬ 모름

24. 귀하 가구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 한 달분의 생활비가 없게 되는 경우, 귀하 가구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 ① 더 절약하여 생활
- ② 저축 등 재산을 처분
- ③ 빚을 내어서 생활
- 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